

2015-UR-23

Working Paper

런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최 봉

1. 런던 생활임금 도입과정과 현황

○ 영국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시민단체인 런던 시티즌즈가 주도

- 런던 시티즌즈(London Citizens)는 시민단체 연합으로 종교단체, 노동조합,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직
- 런던 시티즌즈는 미국의 생활임금제 경험을 참고하여 2001년 런던 동부지역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
-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 당시 노동당 소속 켄 리빙스턴 시장이 생활임금제를 수용

○ 영국 런던은 매년 11월에 생활임금액 발표

- 2005년부터 런던시는 매년 공식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설정하여 발표
- 최저임금 발표시기(매년 10월)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액 발표시기를 조정
- 2011년부터는 매년 11월 첫째 주를 생활임금 주간으로 정하여 런던시장이 직접 생활임금액을 발표

○ 영국의 생활임금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

- 노동당의 켄 리빙스턴 전임시장에 이어 보수당 소속인 보리스 존슨 현 런던 시장도 생활임금 지지자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

2. 런던 생활임금 수준과 산정방법

○ 런던은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생활임금이 높은 수준

- 런던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약 140%, 영국 전역의 생활임금 대비 116% 수준
- 2014년 런던의 생활임금¹⁾은 9.15파운드로 국가 최저임금에 비해 2.65파운드, 영국 전역의 생활임금 대비 1.35파운드가 많은 금액

1) 2014년에 발표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2014년에 발표된 생활임금은 실질적으로는 2015년의 기준이 되는 금액

- (런던과 영국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2011년 이후 소폭 커지고 있는 상황
- 런던의 생활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이곳의 살인적인 물가를 감안하여 산정하였기 때문

(단위:파운드)

연도	런던		영국		영국 최저임금
	생활임금	차액	생활임금	차액	
2011	8.30	2.22	7.20	1.12	6.08
2012	8.55	2.36	7.45	1.26	6.19
2013	8.80	2.49	7.65	1.34	6.31
2014	9.15	2.65	7.85	1.35	6.50

[표 1]
영국과 런던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시급기준)

○ 런던의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상대적으로 복잡

- 런던의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기본생활비용 접근법(Basic Living Costs approach)과 소득분포 접근법(Income Distribution approach)을 활용
 - 기본생활비용 접근법(A)은 가계 지출수준을 감안하여 빈곤기준선을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소득분포 접근법(B)은 가계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빈곤기준선을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 (A)와 (B) 각각에서 산출한 시간급을 산술평균한 금액((C)={(A)+(B)}÷2)에 불확실한 상황(천재지변, 장례 등)을 고려하여 15%를 가산한 것이 런던의 생활임금((C) × 115%)

런던		서울	
방법	기준	방법	기준
기본생활비용 접근법	가계 지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가계 지출
소득분포 접근법	가계 소득		

[표 2]
런던과 서울의
생활임금
산정방법 비교

3. 런던 생활임금 적용 현황

○ 영국의 생활임금은 공공과 민간에서 폭넓게 적용 중

- 영국 전역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현재 1,497개
- 생활임금제는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널리 확산

○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

- ITV, Nationwide, Google 등의 기업을 포함하여 BARCLAYS, HSBC 등 유수의 금융기업도 생활임금제를 적용
-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는 주요 제조업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으며 800여 개에 달하는 계약사들에게 2017년 12월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
- 2015년 5월 현재 런던은 공공 및 민간부문 567개의 사업장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
-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소매업과 여행업에도 생활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

4. 생활임금을 이끌어가는 기관들

○ 광역런던기구(Great London Authority, GLA)

- 런던시 전반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시, 의회, 자치구로 구성
- 광역런던기구는 생활임금제 시행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주체
- 2005년에는 광역런던기구에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부서(unit)가 만들어졌으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
- 생활임금재단과 협력하여 생활임금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

- 런던 시티즌즈는 2011년 5월에 생활임금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할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을 설립
- 생활임금재단은 직원, 자문위원단, 정책그룹 등 세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며 직원들은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반영하여 정책 그룹과 함께 각종 지침을 수립
- 생활임금재단은 런던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
- 재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공식인증제도, 파트너십, 생활임금제 확산

운동 등

-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 Trust for London(자선단체), KPMG(다국적 회계회사), Joseph Rowntree Foundation(자선재단), Linklaters(국제법률회사), AVIVA(생명보험회사), Nestle(다국적 식품회사) 등과 협력하여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 생활임금위원회(Living Wage Commission)

- 영국의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기구로 정치적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특징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임금이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취약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 또한 생활임금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르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연구하며 그 결과에 대해 평가
- 영국 성공회 요크 대주교인 존 센타뮤(John Sentamu)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조합회의(TUC) 사무총장, 영국상공회의소 대외정책부문 대표, 베번재단 대표, NCVO(비영리봉사단체) 대표, 요크대학 교수, KPMG 영국 대표, 저임금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

※서울을 비롯한 국내 생활임금위원회는 지자체 산하의 생활임금 심의 기구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생활임금위원회와 차이

5. 생활임금 관련 주요 관심사(논의사항)

○ 생활임금액 결정 과정(process)

- 런던은 광역런던기구(GLA)의 생활임금보고서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액을 런던 시장이 발표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생활임금 산정방법과 금액을 제시한 후 이를 기초로 서울시(노동정책과)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고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언론에 발표

- 서울은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

- ☞ 런던은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가?
- ☞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 실무자, 노·사 등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교환·협의·토론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민간으로의 확산과정

- 공공부문은 생활임금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쉽지만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
- 서울은 민간부문 확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조달과 민간위탁 분야로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나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단계
- 런던은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널리 적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로 제도 확산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 ☞ 생활임금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식인증제도에 따른 로고 사용 승인, 생활임금제 확산운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 민간부문(사업장)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런던시로부터 주어지는 인센티브(세금감면, 입찰우대 등)가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인 캠페인 또는 홍보에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가?
- ☞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 또는 차별이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생활임금제 실행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생활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운영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제도
-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등 조직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 생활임금제 실행 및 확산(특히 민간부문에서)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런던시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생활임금과 관련해 서울시와 런던시의 지속적인 업무협약 제안

- 런던은 시장이 주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제도를 실행한 광역스케일의 지자체
- 제도 실행 첫해를 맞고 있는 서울은 시행착오 최소화,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임금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 생활임금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런던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의 제안

구분	런던	서울
도입 시작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
생활임금 공표	매년 11월 런던시장 발표	매년 10월 예정,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이후 서울시가 언론에 발표
2015년 적용 생활임금액	9.15파운드 (약 15,530원)	6,687원
최저임금 대비	약 140%	약 120%
산정방법	가계 소득과 지출 고려	가계 지출 고려
산정주체	광역런던기구(GLA) 내 생활임금관련 조직	서울연구원, 서울시 노동정책과
적용범위	런던 광역권 전체 (자치구 포함)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제외)
적용현황	민간부문까지 확산 적용	직접고용과 산하기관에 적용 중
관련기관	생활임금재단, 생활임금위원회	없음

[표 3]
런던과 서울의
생활임금제도
비교

서울연 2015-UR-23

런던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5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